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6월 5일(금)

...(음력 4월 20일)...

Пятница

5 июня 2026 г.

№ 22 (1218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6일 러시아와 전세계에서는 위대한 시인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쉬킨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두가지 주요 명절인 '러시아어의 날'과 '푸쉬킨의 날'을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알렉산드르 푸쉬킨의 동상. (이예식 기자 촬영)

존경하는 쿠릴 주민 여러분!

6월 5일은 쿠릴열도들에서 세웨로-쿠릴스크,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지역들이 형성된 지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진일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쿠릴열도들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확립했고, 그 후로 3개 지역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태평양 전초기지로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쿠릴열도는 특별한 곳입니다. 화산과 바다, 원시적인 자연과 풍부한 생물자원, 독특한 역사와 활기 넘치는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쿠릴열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이는 쿠릴 섬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장병들은 태평양 국경에서 조국을 위한 임무를 용맹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쿠릴열도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을 개선하고 있고, 도로와 주택과 사회적 시설을 건설하며, 사업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의 노동으로 고향인 쿠릴섬에 대한 충실함을 증명하고 있는 쿠릴 주민들의 활기찬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중요한 이날을 맞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강건함과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주, 7천 곳 이상 파손된 도로 보수공사

사할린주 10개 지자체에서 파손된 도로 보수공사가 끝난 가운데 사할린 남부 지역에서는 6월 1일 계획한 작업이 완료됐다. 마카로브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세웨로-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에서도 도로보수공사가 예정보다 빨리 완료되었다.

도로보수공사에 대한 문제는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정부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서 "우리는 매해 도로보수공사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도로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중 내내 지역의 도로가 안전하게 오래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주지사는 강조했다.

봄철 사할린주 도로 조사를 통해 총 9만 4천100m² 이상의 면적에서 8,401건의 도로 파손이 발견되었고, 7만3천800m² 면적에서 7천 건 이상 보수공사를 마쳤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도로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할린주 도로교통부의 막심 조골레브 장관은 "우글레고르스크, 스미르니흐, 포로나이스크 지역에서는 일정에 따라 도로보수공사가 7월 1일쯤 마무리될 예정이며, 일주일 이내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

고, 사할린 북부 지방도로의 파손된 도로보수공사도 6월 22일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올해 처음으로 주지사와 '로스압토도로가(러시아 도로청)'와의 합의에 따라 지방 및 연방도로의 파손된 도로보수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사할린 남부 연방도로는 이미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사할린주 도로보수공사 전체 완료는 7월 1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토마리, 티몹스코예 지역에서는 6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모든 도로보수공사에는 도로공사 표준 품질준수에 따른 감독이 조직되어 있다.

5월 하반기에 사할린주 교통부 산하 '사흐도르모니토링(사할린 도로 조사분석)'기관의 전문가들이 마카로브 지역을 비롯해 스미르니흐, 티몹스코예에서 아스팔트포장 공장들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한편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에서는 도로보수공사 점검 시 표준 미달사항이 발견되어 시행업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지시한 기관에게는 도로공사 표준 준수에 대한 점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단신

사할린에 조기 심장병진단센터 열려

사할린에 심장질환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심장진단센터(Reference Center)가 문을 열었다. 이 센터의 새로운 시스템은 환자의 진료 정보를 분석해 심장마비 및 기타 질환의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러시아에서는 유일하며, 사할린 심장병외래진료센터 내에 개소된 가운데 사할린에서 고위험군의 주민들 약 3천 명이 이곳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심장질환으로 내원한 환자 190명 중 53명이 심혈관 치료를 받고 있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증세를 겪은 주민 2,500명 이상이 등록되어 필요한 약물치료를 받고있다.

사할린에 불법체류 외국인, 37명 추방

사할린주 연방 법집행기관이 5월 한 달 간 입국 규칙이나 거주체계를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37명을 추방했다.

추방된 외국인 중에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1명의 아동을 포함해 27명, 아제르바이잔과 키르기즈스탄 국적자 각각 4명, 아르메니아와 타지키스탄 국적자는 각각 1명으로 러시아를 떠났다. 추방된 자들은 최대 5년간 러시아 입국이 금지된다.

사할린주, 학생 여름방학 휴식에10억 루블리 투입

사할린주 정부가 2026년에 사할린주 학생들 약 3만 3천 명의 휴식, 보건, 활동을 목적으로 총 10억 루블리 이상을 배정한 가운데 그중 5천820만 루블리는 청소년 채용에 배정되었다.

6월 1일부터 여름캠프가 시작되어 '차이카', '레스노예 오제로', '유빌레이니', '위스트크' 휴양소가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1차로 문을 열었다.

전 러시아 아동센터와 국제아동센터에서 휴식 이용권 373장을 확보했고,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오케안' 휴양소 이용권 350장을 추가로 구매했다.

'2026 - 디코로시야' 미식마라톤 개최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자연 식재료를 이용한 네 번째 미식마라톤 '디코로시야(러시아 야생식용식물)'가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열린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특산품으로 만든 요리들을 소개하기 위해 20개 요식업체가 참가해 엄선된 봄철 산나물과 해산물을 조합한 3코스의 요리세트를 제공한다. 세트 요리의 가격은 1,450루블이다.

새고려신문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으로 박순옥 회장 재선

5월 30일(토) 오전 11시 사할린한인문화 센터에서 주한인협회의 선거회의가 진행되었다. 사할린주한인협회의 회원 총 46명(개인 회원 및 단체회원 전체)중 이날 회의에 37명이 참석했고, 2명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선거회의조직위원장인 리 파벨 씨가 회의를 열고 이날 회의 의제를 소개하고 주한인협회 회장 후보로 한 명만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의장으로는 인나 코르네예와 사할린주한국어교사 및 교육자협회 회장이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2023년 8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활동 보고가 있었다. 박순옥 회장은 "2023년은 재정지원 없이 시작한 어려운 해였으나, 법정 소송과 감사 속에서도 단체는 중단 없이 운영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새 정관을 채택하고, 내부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2023년에는 보조금과 의료 상담실 운영비를 2017년 이래 처음으로 받지 못했으나, 자체 수익으로 의사의 월급과 약값을 충당했다고 밝히고, 협회에 지난 3년간 의료 상담실을

1세 동포들이 2400여 회 방문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1세대에 가정방문 진료가 380여 회로 기록됐다고 보고했다.

2024년부터 대한적십자사 프로그램이 재개돼 1세대 어르신 64명, 2세대 10명이 일시 모국 방문을 했다. 2023년 자금 부족 시에도 의료상담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약품과 인건비는 협회 회원들이 장터에서 번 돈으로 해결했다. 협회는 1세 동포 관련 활동을 최우선 사업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1세대 동포들을 비롯해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한 건강검진, 예방활동 등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1세대들을 위해 3년간에 새고려신문 320부를 구독해드리기도 했다.

박 회장은 협회 주도로 6년간의 노력 끝에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 '사할린 한인' 상설 전시실이 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또한 포자르스코예 마을 근처에서 러시아 수색대와 함께 1945년 미주호 마을 한인학살 사건 피해자 유해 발굴을 시작했으며, 사흐초르스크 학교에 소련 영웅 김 예브게니 이와노위츠의 명칭을

부여했고, 협회는 매년 한국어 및 한국학 경시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협회는 매해 여러 지자체에서 한민족문화를 알리는 '한 가정에서'축제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수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사할린주한인협회는 2024년부터 해마다 주지사컵 동양무술 대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도시의 날 맞아 개최하는 사할린 김치축제는 러시아 전국 모범지방자치체 경연대회에서 5위를 차지했고, 작년에 사할린 한인의 주요 행사로서 광복절 행사에는 봉사자 360명, 관객 3500명이 참가했다.

그동안 협회는 사할린주 정부 및 지방자치체들의 각종 기획에 따른 대회에 참가하여 성공적 활동으로 장려금을 여러 번 받았다.

또한 주한인협회는 지속적으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관련 활동을 해왔다. 2025년 6월 한국 국회에서 사할린 동포 정책 공개 토론회 열린 후 협회는 2025년 11월 '사할린 동포 지원특별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공동요구서를 한국 국회에 전달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외동포청에 법 개정 관련 자

료를 준비해왔다. 개정된 특별법 시행을 위해 지난 6월에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재외동포청 대표단과의 만남에는 400여 명이 참가했다.

또한 사할린주한인협회는 특수군사작전 참전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85만 루블리 이상 어치 의약품을 최전선으로 보냈고, 김치를 만들어 9차레 보냈으며, 쿠르스크 지역에도 500kg 물품을 보냈다.

박순옥 회장은 "단체 이미지 회복이 핵심 과제이며, 지난 3년간 협회 회원들이 받은 표창과 감사장은 총 73건"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회장은 단체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렇게 훌륭한 팀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보고를 마무리했다.

그 다음 사할린주한인협회 최영자 감사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그녀는 결산기 재정보고를 연도별로 자세히 소개했다. 단체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상당한 액수였다. 한 해는 수익금이 2천2백만 루블리에 달한 적도 있다. 상당한 액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가 지원하고 사할린한국교육원(시설 임대), 사할린주 정부 장려금 등으로 들어온 수익이다.

이모저모

코르사코브 지역에서 열린 지식 경진대회, 라즈돌노예 마을 학생들 우승

코르사코브 지역에서 열린 <집중, 문제!> 대규모 지식 경진대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지식 경진대회는 뛰어난 정치가 미하일 세묘노위츠 코르사코브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5월20일 '오케안'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추첨식으로 막이 올랐다. 5월 30일(토) 코르사코브시는 대회 결과 지역의 가장 박식한 지식인과 우승자들을 선정했다.

경진대회에 지역 내 8개 일반학교의 8학년 - 10학년생들이 단체로 출전했고, 결승전에는 최근 지역에서 동부 시베리아 총독 코르사코브의 생애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연구활동 경연대회의 우승팀과 수상팀들이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강력한 4개 팀이 결전을 벌인 가운데 결승전에서 '코르사코브 주민들'헌성팀과 라즈돌노예 마을 2호 학교의 대표들이 우승 트로피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였다.

결승전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학생들의 철저한 준비성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라즈돌노예 마을 학교의 참가팀이 결승전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거둔 가운데 학생들은 경쟁 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6:1이라는 완승을 거두고 말았다.

지적 마라톤 경진대회의 우승팀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역사 여행>이다. 우승한 팀을 위해 미하일 세묘노비츠 코르사코브의 삶과 행적과 관련된 명소와 상징적인 장소로 단체 방문이 조성될 예정이다.

Школьники из села Раздольное выиграли исторический турнир в Корсакове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масштабног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турнира «Внимание, вопрос!». Цикл тематических встреч, приуроченных к празднованию 200-летия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выдающего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еятеля Михаила Семеновича Корсакова, стартовал 20 мая в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м центре «Океан» с торжественной жеребьевки. В субботу, 30 мая,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определили абсолютных победителей и обладателей звания самых эрудированных знатоков округа.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е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вступили сборные учеников 8–10 классов из восьми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В составы команд вошли финалисты,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недавне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работ, которые также были посвящены детальному изучению биографии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чье имя гордо носит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од. По сумме набранных баллов в полуфинал пробились четыре сильнейшие команды. В финальном же раунде за главный трофей со сборной

«жителей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ош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ородской школы № 2 и сельской школы из Раздольного.

Тематика вопросов финала была крайне глубокой и требовала от учеников серьезной подготовки.

Абсолютным триумфатором финала стала команда знатоков из школы села Раздольное. Ребята буквально не оставили шансов соперникам и вырвались вперед с разгромным счетом 6:1.

Победителей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марафона ждет уникальная награда — эксклюзив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 историю». Для ребят организуют коллективную экскурсионную поездку по знаковым местам 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 неразрывно связанным с жизнью и созидательным путем Михаила Семеновича Корсакова.

약 200명의 가라테 선수들과 학부모, 유즈노사할린스크 불세비크산에 올라

봄의 마지막 날인 5월31일, 사할린주 가라테연맹이 '고르니 위즈두흐'스포츠관광단지 중간역에서 정상까지 가족단위로 등반을 조성했다.

전과 같이 올해 대규모 등반이 국제 아동보호의 날을 맞아 진행된 가운데

약 200명의 참가자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하나가 되어 불세비크산의 급경사를 향해 올랐다. 사할린 가라테 종목의 가장 어린 선수들과 초급 학생들이 그들의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노련한 지도 코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끈기있게 산을 향해 움직였다. 특히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 수구대회에 참가했던 아무르주의 수구팀도 대규모 가족 스포츠대회에 합류하여 산에 올랐다.

해발 600m 이상의 상당히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은 각별히 긍정적이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어른들은 어린 참가자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어려운 코스를 극복하도록 돕고, 더 노련한 참가자들은 전 그룹에 안정적이고 당당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앞장서 갔다.

참가자들이 산기슭에서 정상까지 등반하는 데 약 1시간 정도 걸렸다. 산 정상에서 푸르른 녹음으로 둘러싸인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환상적인 풍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지고, 정상에 오른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서는 즐거운 행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불세비크산 정상에서 축하의 분위기 속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가라테 연맹의 생활에 적극적인 참여와 <승리를 향한 의지를 위해>라는 개별적 기념증서를 수여했다.

Около 200 каратистов и их родителей покорили гору Большеви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день весны, 31 мая, федерация киокуш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а семейное восхождение на среднюю площадку и вершину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Традиционный большой поход выходного дня в этом году был приурочен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ня защиты детей.

На штурм крутых склонов горы Большевик единой дружной колонной вышли почти 200 участников. Плечом к плечу с самыми юными и начинающими каратистами острова вверх упорно двигались их мамы, папы, бабушки, дедушки и, конечно, опытные наставники-тренеры.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к большой сахалин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семье в этот день на маршрут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и гости острова — команда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водному поло, прибывш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еший подъем на внушительную высоту более 600 метров над уровнем моря прошел в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озитивной и дружеской атмосфере. Взрослые подставляли плечо и помогали малышам преодолевать сложные участки тропы, а более опытные бойцы задавали уверенный и стабильный темп всей группе. Весь пеший маршрут от подножия до верхней точки занял у участников чуть больше часа. На финише, помимо фантастической живописной панорамы утопающего в зелен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ех покорителей вершины ждала приятная церемония.

Прямо на вершине горы Большевик каждому ребенку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вручили персональные памятные грамоты «За волю к победе» 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жизни федерации.

<사할린식 올해의 노래> 팝쇼, 6월 6일 체호브센터에서 개최

6월 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지역의 뛰어난 연주자들과 수준 높은 많은 생음악 애호가들이 한 무대에 올라 여름철 최고의 팝쇼를 개최한다.

독특한 공연 프로그램이 사할린의 관객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사랑스런 사할린을 주제로 사할린의 재능있는 작곡가들이 직접 만든 창작곡 노래 공연이 펼쳐진다.

관객들은 25곡 이상의 매혹적이고, 다채로운 곡들을 즐길 수 있는데 가장 복잡한 댄스 무대를 추가하고, 대규모 조명쇼에 극히 역동적인 영상을 배경으로 하여 각 무대는 미니스펙터클이 된다. 특히 생생하고도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든 곡목들을 완벽하게 부르는 것이 공연의 하이라이트이다.

이번 공연은 사할린주의 보컬 인재를 발굴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주요 공연을 펼쳐온 <댄스뮤직 예술사업연맹>이 주최하고, 기획은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사할린식 올해의 노래> 총결로서 곡목 선정은 일년 내내 중단없이 진행되고, 사할린 라디오 방송곡의 인기있는 방송 <우리의 음악>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청취자에게 사랑받고, 가장 많은 신청을 받은 곡들이 사할린의 주요 극장 무대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공연에서 진행자, 전문 무용인, 가수들이 공연장을 축제의 분위기로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음악축제는 6월 6일 18시 안톤 체호브 국제극장에서 시작된다.

(8면에 계속)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으로 박순옥 회장 재선

이날 보고자들이 참석자들의 여러 질문에 답변한 후에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 선거가 이루어졌다. 선거는 비밀투표로, 선거에는 현장에 있는 회원만이 참여했다.

한편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 후보 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였고, 접수에 필요한 일부 서류 중에는 대학 졸업증서, 한국어 과정 수료증이 필수였다.

유일한 회장 후보로 나선 박순옥 회장은 현황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선출되면 후계자 준비 문제에 중점 두겠다고 말했다.

비밀투표 결과는 37명 유권자 중 36명은 찬성, 한명은 기권이었다.

향후 회장 임기는 3년이며 개정된 정관에 따라 횟수는 제한이 없다.

회의에서 부회장으로 리 파벨 기르소노위츠를 만장일치로 선출했고, 감사위원들도 뽑았다. 또한 박순옥 회장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 구조: 회장, 부회장을 비롯해 아나와·네벨스크·돌린스크·우글레고르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크·토마리·포로나이스크·마카로브 지방 대표 (8명), 사단법인인 '코르사코브 지역 한인디아스포라' 사회단체·홈스크 '사할린한인'사회단체·사할린주 사할린 한인여성회·사할린씨름협회·사할린 한인청년회·사할린 태권도협회·'클럽 토르나도'스포츠단체·코르사코브 '스포츠클럽 예진스트위', 법인이 아닌 단체 - 사할린 한인이산가족회·사할린 한국어교사협회·사할린 한인노인회·사업가협회다.

회의 참석자들이 선출된 회장에게 요청한 것은 노인회 사업 재개, 사할린 한인사회의 분열 문제 해결을 비롯해 주한인협회가 모든 한인단체를 선도해가는 것이 회장의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사 기자 배순신)

"러시아어 회화, 수십년 경험 토대로 가르쳤죠"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호수봉사단이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어 회화 강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호수봉사단은 사할린 동포 2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다. 이들은 러시아에서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어에 능통한 것이 강점이다. 이번 강의는 러시아 여행을 계획하거나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현지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필수 회화 표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에 참여한 봉사단원들은 수십 년간 러시아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교통·숙박·식당·쇼핑 등 여행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표현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자신들의 언어적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으로 평가



▲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호수봉사단이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어 회화 강의를 진행했다.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제공

받고 있다.

유하녀 호수봉사단장은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젊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충청투데이)

국립생태원,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무궁화봉사단' 대상 맞춤형 생태교육 추진

[충남일보]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서천군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서천군에 거주하는 사할린 귀국 동포 어르신들로 구성된 ‘무궁화봉사단’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5회에 걸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경 고국으로 돌아와 서천군에 정착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며 외로움을 겪는 사할린 이주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대상인 ‘무궁화봉사단’은 거동이 가능한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그동안 지역 내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국립생태원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활동에 필요한 관련지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태 특화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생태 특화 교육은 지난 21일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포유류 박사

님이 들려주는 ‘고향의 기억, 야생동물’, 조류 박사님이 들려주는 ‘하늘의 나그네, 철새’등을 주제로 매회 다르게 진행된다.

어르신들이 평생을 보냈던 사할린의 자연환경과 고국의 생태를 비교하며 향수를 달래고 생태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주변의 외래생물 바로 알기 및 제거하기 등 지역사회 환경 정비 활동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과 평소 ‘무궁화봉사단’의 활동신조였던 ‘그린(Green) 선배시민’ 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사할린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 고국으로 돌아오신 어르신들이 생태 교육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지역사회와 더 깊이 소통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생태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복 입고 고국 품으로"... 사할린동포들의 특별한 한국민속촌 나들이

고국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한국민속촌 나들이'를 진행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할린동포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주민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한국민속촌을 방문해 전통 가옥 투어, 한복 체험, 떡메치기, 전통 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직접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문화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민속촌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

을 통해 고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나들이에 참여한 한 사할린동포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고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무척 뜻깊었다"며 "이웃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은정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고국으로 돌아온 사할린동포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한국민속촌 나들이'를 진행했다.

<영종종합사회복지관 제공>

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화합의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 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용 복

관리번호	952177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 용 복	한자	金龍福
이명	金世權 金瑞憲 金瑞根 金瑞勳	성별	남
생년월일	(1900)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함경북도 명천 하우 호포 78		

공훈록

191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하여

군자금 모집에 힘쓰고 있던 김정하(金鼎夏)를 만나 국내에서 독립운동자금 모집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후 국내에 있는 친일파 처단과 청진경찰서(淸津警察署) 폭파 등에 사용할 폭탄 6

개를 김정하로부터 받아 박주호(朴周浩)·정무봉(鄭茂奉)과 함께 9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여 9월 24일 함경북도 청진항(淸

津港)에 도착하였다.

이때 청진부(淸津府)에 거주하고 있던 지인 김기도(金基道)와 거사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중, 이들의 움직임을 탐지한 청진경찰서 경찰에 의해 박주호와 정무봉이 체포되자 피신하여 러시아로 돌아왔다. 러시아 연해주 니콜리스크에서 머물던 중 1921년 6월 채덕승(蔡德勝)과 함께 일제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같은 해 7월 6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과 '폭발물취체벌칙(爆發物取締罰則)' 등을 이유로 징역 10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1921년 9월 4일 공소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21. 2. 7)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21. 3. 7)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20. 10. 27, 1921. 6. 8, 7. 22, 1923. 2. 4)
- 조선일보(朝鮮日報)(1921. 6. 11, 6. 29)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6. 21, 7. 23)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내지(在內地)(11)(폭탄(爆彈) 휴대(攜帶) 범인(犯人) 검거(檢擧) 속보(續報),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경무총장(警務總長) : 1920. 10. 14)
- 회상기(이인섭, 독립기념관 소장)
- 조선민족 해방운동에 참가하던 빨치산 회상기(이인섭, 독립기념관 소장)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880~881면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ОСК вновь избрана Пак Сун Ок

30 мая в 11 утр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е собр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Организация насчитывает 46 членов -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и организаций. На собра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37 человек очно, еще двое подключились онлайн.

Открыл собран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оргкомите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вел Ри. Он сообщил, что кворум есть, а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оступила одна заявк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обрания была избрана Инна Корнее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отчетом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с августа 2023 г. по май 2026 г. выступила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Финансовый доклад представ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виз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Цой Ен Зия. Она подробно отчиталась по всем трем годам. Финансовых нарушений н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Бюджет дан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есьма значительный.

После отчетов и ответов на вопросы провели процедуру тай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выборах принимались с 30 апреля по 20 мая 2026 г. В перечень обязате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для кандидата входили,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ки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были диплом о высшем образовании и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владени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Это существенно ограничило круг претендентов.

Единственной кандидатурой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стала Пак Сун Ок. Представляя свою программу, она заявила: "Занимаясь текущими проблемами, я не уделила достаточного внимания подготовке преемника. В случае избрания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его срока полномочий буду заниматься подготовкой нового лидера." Пак Сун Ок обещала продолжить ныне действующие проекты, удел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молодежи.

В голосовании участвовали 37 человек,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х на собрании лично. Результаты: 36 — за, один воздержался.

Вице-президентом РООСК открытым голосованием единогласно избран Ри Павел Гирсонович.

Вновь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предложила избрать правление в составе 22-х человек. В него вошли: президент, вице-президен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8 районов и городов (Анивский, Невельский, Долгинский, Углегорск, Красногорск, Томари, Поронайский, Макаровский), а также восемь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четыре организации без образования юрлица. Сред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 МОО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региональная молодеж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 «Сахали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тхэквонд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спортив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луб Торнадо», Корсаков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портивный Клуб Единство». Организации без образования юрлица - Общество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Ассоциация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и Ассоциация бизнесменов.

Участники собрания дали наказ президенту возобновить работу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который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ездествовал. Также они призвали объединить корей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а, пригласить вступить в члены РООСК.

Основные моменты из отчетного доклада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резидент Пак Сун Ок отметила, что 2023 год стал для РООСК годом глубоких организацион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времени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изменение внутренней структуры 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базы организ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внесение изменений в Устав. Главным вызовом 2023 года стало отсутствие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Впервые с 2017 года РООСК не участвовала в конкурсах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нтов, субсидий. Также не были выделены средства на содержание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кабинета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о словам Пак Сун Ок, несмотря на поздний старт и отсутств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а также на фоне судебных разбирательств, организация работала без перебоев и выполнила все поставленные задачи.

«Мы сосредоточились на развитии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креплении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и расширении охвата нуждающихся в нашей помощи, - заявила президент.

- Были реализованы ключевые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достижение уставных целей организации.»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более 195 мероприятий только силами РООСК, не считая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и.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ала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и работа с первым поколением. Велась работа с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поездки по программе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В 2024 г. восстановле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о и 2023 году, несмотря на отсутстви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кабинет работал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ны внутренние резервы.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роводятся досуг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 приглашением врачей (обеда, лечебная гимнастика).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Организация занима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м памятников, посвященных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о инициативе организации начат поиск захоронений корейцев, погибших в селе Пожарском (бывшем Мидзухо)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от рук японцев.

По инициативе РООСК и У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школе Шахтерска присвоено имя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им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что накладывает на организацию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молодежи.

Одно из значимых событий дл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 открытие по инициативе РООСК постоянной экспози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РООСК вела работу по Спец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ла с депутат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18 июня 2025 год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оялось публичное обсуждение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ООСК.

Организация также сотрудничала с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РК по подготовке данных для Агентств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поправки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водились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ультурно-массовые и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ация не раз становилась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ов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получала гранты и субсидии. Одно из самых масшта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2025 г. в нем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более 3500 человек.

С 2024 г. проводитс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стиваль восточ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на приз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ция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пользую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фестивальные проекты в рамках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гранта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проходит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рганизуются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фестивали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РООСК представляла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форуме «Россия» на ВДНХ. В течение 2 дней там прошл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тхэквондо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 а также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главной сцене ВДНХ.

Велась работа с район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ми. РООСК по мере возможности оказывает поддержку отделениям на места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ешая вопрос о выделении помещений для работы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вместно с Институтом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проводятся олимпиады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корееведению.

РООСК оказывает помощь участникам СВО. Отправлено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на сумму более 850 тыс. рублей. Изготовлено и отправлено 9 партий кимчи.

Члены РООСК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благодарностями и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медалями «Сахалин - помощь фронту».

«Ключевой задачей являет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имиджа организации. Ярким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нашей значимости стало собрани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совместно с Агентство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етило более 450 человек.», - подчеркнула Пак Сун Ок

Виктория Бя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очерк Николая Долгополова о легендарном разведчике, Геро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и Ивановиче Киме.

Жизнь в триумфах и трагедиях.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1932-1998)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 18, 19, 20, 21)

«На оперативной работе в разведке с 1962 года». Это утверждение из спецдосье не подвергается сомнению. Работа была оперативной, но, возможно, легальной. Оценкой получен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стала первая боевая награда — медаль «За отвагу».

Не вызывает сомнений и следующая чеканная фраза: «В 1966 году в качестве разведчика-нелегала выведен в страну со сложной агентурно-оперативной обстановкой. Зарекомендовал себя опытным работником, отличавшимся высоким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ом, широким кругозором, хорошими аналитическими и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А дальше началась работа «в особых условиях». Как это было? По рассказам, слышанным 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мною до недавнего частичного рассекречивания, его доставили на унылое побережье с мрачными скалами на веслах. Или высадили со всплывшей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подобравшейся на максимально близкое расстояние к берегу. В условленной точке он быстро отыскал припрятанную в камнях скромную крестьянскую одежду. И странник пошел по новой своей жизни.

В рассекреченном параграфе служебного досье описывается более прозаический и достоверный способ доставки. В 1966-м советское торговое судно тайно высадило нелегала в порту одной страны. Здесь коллега из легальной разведки передал ему деньги и документы. Понадобилось 17 лет на то, чтобы построить биографию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го человека. Из безработного с годами он превратился в поче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города.

Стараниями нелегала работа пошл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успешно. Настолько, что прерывать ее, ведущую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СССР в неимоверно тяжелой обстановке, было бы нецелесообразно. Ведь Ким быстро ориентировался в сложных условиях. Не особо мешкая, приступил к поиску тех, кто мог быть полезен советской разведке. Информация из страны пошла быстро. А потом он получил доступ и к документам, которые в Центре оценили, как важнейшие. Командировку,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й разведчику пришлось перемещаться по разным городам двух полушарий, включая государств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длили до десяти лет. Потом продлевали еще и еще. Он тосковал, но не жаловался. Знал, что его работа нужна.

Знали это и в Центре. В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об этом написано так: «С чувством высокой от-

ветственности относился к выполнению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Успешно справлялся с ними. Проявил при этом высокие мор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качества. Показал себя политически зрелым и оперативно грамотным разведчиком. В решении оперативно-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вопросов действовал смело, целеустремленно, с проявлением инициативы и творчества добился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онкрет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Им добыта и направлена в Центр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которая получила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Ким пользовался всеми языками, которые в совершенстве знал. На спецподготовке нелегал освоил несколько полезных профессий. Пока неизвестно, какая из них понадобилась больше всего.

Нелегалы, как правило, работают парами. По идее, жена Кима должна была к нему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деля все тяготы (и радости тоже) совместной боевой работы и семейной жизни.

С будущей супругой Ким познакомилс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В Ленинград она приехала из Калининграда, где служил отец, занимавший высокий пост. Мать — зубной врач. Семья солидная, интеллигентная, в которой дочь решила заняться изучением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а. А свадьбу сыграли в Москве, где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л свои разнообразные знания Ким Ен Чер. Жена работала вместе с известными востоковедами в солидном учебном заведении. Занималась переводами с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а.

Тут позволю задать себе и только себе наивный вопрос: а как бы смогла жить, не привлекая внимания, в сугубо азиатской стране простая советская женщина с европейской внешностью? Хотя и это можно было как-то предусмотреть в сложнейшей легенде, которую, увы, так и не пришлось использовать.

Но все же после четырех лет отсутствия, когда стало понятно, что командировка Кима затянется, жену начали было готовить к отъезду. Однако совершенно новый язык давался сложно. Вряд ли какое-либо прикрытие спасло бы от подозрений женщину, похожую на жительницу Прибалтики. Да и характер, по воспоминаниям многолетнего начальника нелегалов, был сложный, неуступчивый. Жена Кима так и не была выведена за кордон. Используя терминологию разведки, «сошла с подготовки». Бывает.

Источник: Долгополов Н.М. Легендарные разведчики-4. М., 2024. С. 93-113. —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ей: сер. биограф.; вып. 2003).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стабилизации цен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оручил правительству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стабилизаци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Выступая 2 июн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затянувшийся конфликт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оказывает негативное влияние на жизнь населения.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звал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поставки на рынок товаров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резервов и применять программы скидок, поскольку рост инфляции продолжается, несмотря на ограничения цен на нефть. «Если рост цен продолжится, его влияние на уязвимые группы населения неизбежно возрастёт. Это приведёт к усилению поляризации общества и ослаблен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Без ценов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не может бы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 добавил президент. Он предостерег от монополизации рынка, ценового сговора и других форм манипулирования рынком. Ли Чжэ Мён пообещал добиться «роста для всех», проводя меры по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му региональному развитию, а также стремясь повысить роль страны как мирового лидера в области дипломати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наращивает экспорт контента и приём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Экспорт контента из Р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остиг рекордного уровня благодар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по развитию индустрии «К-контента» как ключевого сектора роста.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экспорт контента в 2025 году составил 14 млрд 900 млн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800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сетивших стран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ыросло до нового максимума в 18 млн 940 тыс. человек. Расходы иностранцев по кредитным карта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достиг рекордной отметки в 14 млрд 100 млн долларов.

SEVENTEEN на седьмом месте в мире по сборам от концертов

1 июня Billboard опубликовал данные о концертных сборах миров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за последние полгода. В топ-20 рейтинга вошли K-pop группы SEVENTEEN, TWICE и TOMORROW X TOGETHER,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дтвердив свою популярность на мировом концертном рынке. Согласно отчёту Billboard, охватывающему период с ок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март текущего года, группа SEVENTEEN провела 25 концертов. Сборы от выступлений составили 88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позволило коллективу занять седьм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Далее в списке расположились группа TWICE, занявшая 12-е место с доходом около 58 млн долларов, и группа TOMORROW X TOGETHER, занявшая 15-ю строчку с кассовыми сборами порядка 52 млн долларов. Возглавила рейтинг американская поп-дива Леди Гага, заработавшая на концертах за полгода 231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уэрториканский исполнитель Бэд Банни, а на третьем - Пол Маккартни, участник легендарной группы Beatles.

Популярность K-Food способствует экспорта кунжутного масла

Благодаря глобальной популяр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K-Food) экспорт кунжутного масл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По данным тамож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т 2 июня, в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апрель этого года он составил 6 млн 140 тыс.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37%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ём поставок в весовом выражении увеличился на 47,6%, составив 657 тонн. Как по стоимости, так и по объёму поставок это стало рекордным показателем для периода с января по апрель за всё время вед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атистики. Крупнейшим покупателем кунжутного масла являются США, на долю которых пришлось 41,7% общего объёма экспорта. Далее следуют Канада (9,6%), Тайвань (7,6%), Австралия (7,4%) и Нидерланды (5,3%).

Южнокорейцы сокращают потребление алкоголя

Среднемесячные реальные расход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домохозяйств на алкогольные напитки составили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13 тысяч вон (8,56 доллара). Это на 9%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что стало самым резким падением с момента возобновления ведения кварт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 в 2019 год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 июн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данными. Реальные расходы на потребление алкоголя сокращаются на протяжении 2,5 лет, начиная с четвёртого квартала 2023 года. Сокращение объёмов потребления алкоголя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и другими показателями. Так, объём отгрузок алкоголь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 внутреннем рынке в 2024 году составил 3 млн 151 тыс. килолитров. Это на 17,3% меньше, чем в 2014 году.

RKI

Сеул заявил, что ведёт с Россией "необходимый диалог"

Сеул продолжа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с Россией "необходимый диалог" по различным каналам связи,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ую ситуацию в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8 мая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АП)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мментируя предстоящую поездку главы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П Ви Сон Лака в Казахстан.

"Юж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я через различны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каналы и сейчас ведут необходимое общение, связанное со стабиль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двусторонними отношениями, а также с защитой наших граждан и компаний", - заявила старший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Кан Ю Чжон на брифинге в Сеуле.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

зидента пояснила планы Ви Сон Лака в Казахстане. По словам Кан Ю Чжон, глава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тправится в Казахстан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акту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партнеров Южной Коре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ходе визита Ви Сон Лак намерен встретить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Казахстана.

Стороны обсудят подготовку к саммиту Южная Корея -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который намечен на сентябрь, возможный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Казахстана Касым-Жомарта Токаева в Сеул, а также вопросы регион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сфере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КНДР заявила о применении новой тактики бо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И

КНДР провела очередные испытания новых вооружений, впервые совместив пуски тактически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управляемых реактивных снарядов и тактических крылатых ракет. За испытаниями лично наблюдал лидер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 который заяв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скоренного обновлен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создания "самой современной и самой мощной артиллерийской силы". СМИ отметили, что новые системы использовал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Как сообщило 27 мая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днем ране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испытания новых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й, разработанных ракет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и оборонными науч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траны. По данным Пхеньяна, были проверены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тактическ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240-мм управляемого реактивного снаряда увеличенной дальности" и "тактической крылатой ракет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зарубежные военные и эксперты обратили на то,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именила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и реактивные системы залпового огня. Подобная "смешанная стрельба" ранее практически не фиксировалась. В Сеуле полагают,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хеньян отрабатывает преодоление систем ПРО и создание перегрузки для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ой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

Судя п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фотографиям, КНДР испытала новую "легкую многоцелевую пусковую систему", способную запускать как тактически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так и 240-мм реактивные снаряды. Также была показана новая система залпового пуска тактических крылатых ракет с контейнерным размещением нескольких рак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ЦТАК отдельно подчеркнуло, что тактические крылатые ракеты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в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подразделениях у южной границы страны. По утверждению Пхеньяна, новые ракеты способны наносить "сверхточные удары" по целям на расстоянии около 100 километров благодаря сочетанию автономной навигации, системы сопоставления рельефа местности и элементов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на

Суд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говорил российских моряков к срокам за смерть коллеги

Суд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орода Пусан вынес приговор двум российским морякам по делу о смерти их коллеги на борту российского рыболовецкого судна. Один из обвиняемых получил реальный срок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второй - условное наказание.

Сообщить об опечатке

Как сообщ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решение Пусанского районного суда, старший помощник капитана российского судна в возрасте около 40 лет был приговорен к четырем годам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по обвинению в причинении тяжкого вреда здоровью, повлекшего смерть. Еще один член экипажа, мужчина около 30 лет, получил два года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условно с испытательным сроком три года.

Согласно материалам следствия,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ел вечером 31 ок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сле захода в порт Камчхон в Пусане российского океанического рыболовецкого судна водоизмещением 813 тонн. По версии прокуратуры, двое россиян избили своего коллегу - также гражданина России - прямо на борту судна во время стоянки в порту. Позже пострадавший скончался.

Расследование начала Служба береговой охра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 теле погибше-

го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следы побоев и кровоподтеки. Судебно-медицинская экспертиза пришла к выводу, что смерть наступила в результате сильного внешнего воздействия. Следователи также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и записи камер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установленных на судне.

Во время первого судебного заседания обвиняемые не отрицали факт драки, однако утверждали, что прямой связи между избиением и смертью моряка нет. В частности, старший помощник капитана заявлял, что после конфликта погибший якобы продолжал употреблять алкоголь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членами экипажа. Второй обвиняемый также отрицал часть доказательств, включая протоколы допросов. Однако суд счел доводы обвиняемых неубедительными. Судебная коллегия пришла к выводу, что основной обвиняемый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избивал погибшего, а второй моряк участвовал в нападении, удерживая потерпевшего.

В решении суда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при определении наказания учитывалась степень участия каждого из обвиняемых. Отдельно отмечено, что родственники погибшего не простили подсудимых, а компенсация ущерба выплачена не был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иквидировали более 7 тысяч дефектов на дорогах

В десят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ён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До 1 июня плановые работы были выполнены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Кроме того, досрочно справились с задачей в Макарове,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и Южно-Курильске.

Вопрос о темпах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был вынесен на повестку засед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провё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 каждым годом мы наращиваем темпы дорожных работ и усиливаем контроль за их качеством. Наша задача — чтобы дороги в регионе круглый год оставались безопасными и служили дольше,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сего во время весенне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на дорог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явили 8401 дефект общей площадью более 94,1 тыс. кв. метров. Более 7 тысяч дефектов площадью 73,8 тыс. кв. метров уже устранено. Опережающими темпами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и в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 Высокая степень готовности в Углегорске, Смирных и Поронайске, где по графику работы необходимо завершить к 1 июля. Коллеги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закончат работы как минимум на неделю раньше. До 22 июня также будем стараться завершить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дорогах на севере острова, — доложи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Впервые в этом году синхронизирован ямочный ремонт региональных и федеральных дорог. Такая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между губернатором и главой Росавтодора Романом Новиковым. На юге острова федеральные дороги уже приведены в порядок.

Полностью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на дорог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лжен быть завершён до 1 июля. Томаринскому и Тымовскому районам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справиться с работами до 15 июня.

На всех этапах работ организован контроль по соблюдению стандарта качества дорожных работ.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мая специалисты под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минтрансу ГКУ «Сахдормониторинг» проверили асфальтобетонные заводы в Макарове, Поронайске, Смирных и Тымовском, где не обнаружили нарушений. При контрольном обследовании выполненных работ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выявлены отклонения от нормы. Подрядчику выдано предписание об устранении нарушений, а заказчику работ рекомендовано усилить контроль за соблюдением стандарта.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ут напрямую сообщать о дорожных дефектах на официальных страница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 соцсетях, а также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Сахалин.онлайн.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го Центра «ВОИН» взяла золото на Первенстве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Ф

Команда филиала Центра «ВОИ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Первенства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Ф по армейскому тактико-стрелковому многоборью. Подоб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среди допризывной молодежи в России прошли впервые, их принимал город Барнаул Алтайского края.

Первенство объединило 18 команд из 16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Участники прошли комплекс серьёзных испытаний, включавших стрелковые упражнения, специальные задачи по оказанию первой помощи, метанию гранат и ножей. По итогам состязаний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го Центра «ВОИН» завоева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командном зачёте и второе место в дисциплине «Дуэль». Победителей поздр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Это не просто победа, а подтверждение характера, железной дисциплины и настоящего командного духа наших ребят. Поздравляю с заслуженной победой! — отметил глава области.

Центр «ВОИН» был создан в России 1 декабря 2022 года. Возродить в стране систему добровольной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предложили вице-премьер Юрий Трутнев и первый зам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Сергей Кириенко. Идею поддержа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егодня филиалы Центра работают в 21-м субъекте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е Центра «ВОИН» было открыто в 2024 году. За это время здесь подготовили более 4 тысяч курсантов и 65 педагогов по основ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ащиты Родины.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Барнаул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ляли курсант-гвардеец Валерий Лоншаков и курсанты-бойцы Игорь Корнеев, Николай Федоренко и Матвей Фролов. Все ребята проходят подготовку в Центре «ВОИН» с 2024 года и уже достигли успехов. Так, Валерий Лоншаков является активным участником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лечом к плечу» в составе взвода «Восход» и выполняет в нем роль военкора-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А Игорь, Николай и Матвей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торжественном шествии на Параде Побе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награждены памятным знаком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Ребята проявили характер, дисциплину и умение работать командой. Для нас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 они смогли достойно представить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и подтвердит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директор филиала Центра «ВОИ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Малышев.

Перед поездкой ребята прошли серьёзную подготовку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пыт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Одним из их наставников стал участник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Константин Славгородский.

— Я подполковник полиции в отставке. Когда вышел на заслуженный отдых, узнал о Центре «ВОИН», решил, что могу быть полезен своими навыками и жизненным опытом. Связал себя с патриотическим воспитанием и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ой. В 2025 году в качестве добровольца-наставника выезжал в зону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сле победы испытываю гордость за ребят, за себя и своих коллег, за сахалинский филиал. Это результат нашей общей работы.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ая подготовка сегодня очень нужна молодому поколению, среди нашей молодежи немало достойных и целеустремлённых ребят, — поделился Константин.

Современная дет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в Дальнем начала прием пациентов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День защиты детей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 долгожданную поликлинику в Дальнем. Здесь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4 тысячи юных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едицинских объектов —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реш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Кроме того,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 островах повышается при участии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Расширение сети поликлиник и закрытие потребности региона в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врачах — часть партийного проекта «Здоровое будущее».

— Рядом с новой взрослой поликлиникой в Дальнем появилась детская.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ьше современ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центров, где людя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омфортно получать помощь. В этом году готовимся к открытию еще четырех поликлиник,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ет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в Дальнем площадью свыше 3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рассчитана на 120 посещений в смену. На трех этажах разместили кабинеты педиатров и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абинет неотложной и доврачебной помощи, а также диагностическую службу с перенос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 штате — невролог, оториноларинголог, гинеколог, хирург, эндокринолог, аллерголог, травматолог-ортопед.

— Сегодня впервые пришли в новую поликлинику к нашему доктору на участок. С рождения у Людмилы Павловны наблюдаемся. Здание даже нельзя сравнивать с прежним. Очень красиво здесь! Мы ждали открытия. И ребенку понравилось. Бегаёт, играет, — поделилась мама маленькой пациентки Юлия Глаголева.

Раньше юные южносахалинцы обращались в маленькую приспособленную амбулаторию или ездили в городскую поликлинику на улицу Емельянова. Теперь у них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рядом с домом.

— До открытия новой поликлиники в Дальнем вели только педиатрический прием. А теперь работают уз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Организована диагностическая служба. Появился современный рентген. Есть УЗИ-аппараты — как стационарный экспертного класса, так и переносной, если детям требуется помощь на дому. Для медицин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кабинеты для массажа и лечебной физкультуры,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детской город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Татьяна Колба.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откроется еще одна дет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 на улиц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роме того,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ех универс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для пациентов всех возрастов — в Хомутово, Холмске и Углегорске. Разработаны проекты поликлиник в Макарове и Долинске. Современ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объекты возводятся под ключ по концессии группой компаний «К1».

Ю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легкоатлеты отметили День защиты детей по-спортивному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среди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освященные Дню защиты детей, прошли в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м манеж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олее 5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Долинска, Анивы, Невельска 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спытали свои силы в беге на 60, 100, 400 и 800 метров, метании булавы, прыжках в длину с места и с разбега.

— Э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традиционные и проводятся каждый год ко Дню защиты детей. Изюминка мероприятия в этом году — массовая товарищеская эстафета с участием бойц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Хотелось для особенных детей сделать настоящий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етлана Ходюш.

Спортсменка Татьяна Дмитриев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эти состязания для нее не первые, она много раз принимала в них участие:

— Я занимаюсь легкой атлетикой на протяжении че-

тырех лет. В мои тренировки включены разминка и бег на 600-700 метров, а также я метая снаряд,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Татьяна.

Победителями в своих дисциплинах стали Алина Стекольников, Анна Башмакова, Виолетта Селешева, Дарья Бабкина, Диана Чернова, Диана Клипацкая, Татьяна Дмитриева, Маргарита Епищева, Карина Воробьева, Милана Радионова, Ева Хамаева, Вероника Кузнецова, Лолита Генералова, София Евлантьева, Егор Манько, Павел Тежер, Дмитрий Верхотуров, Артем Бондаренко, Дамир Селешев, Тимофей Песоцкий и Владислав Данилецкий.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порт России», инициированной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Старт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иступили к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10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тартовали строительные-монтажные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новых зон отдыха, скверов, площадей. Эти территории выбрали сам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 ход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я, прошедшего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цпроек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созданного по реш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Работы начались в Анив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Смирнов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Холмском районах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ак,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приступили к обустройству ярморочной площади в селе Новотроицкое. На улице Янтарной планируется установить торговые павильоны, скамьи, урны,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овести озеленение территории.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начали благоустраивать площадь «Пять углов» и сквер в районе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го дома № 30 по улице Советская.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полным ходом идут работы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В текущем году здесь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 площадь Ленина (вторая очередь работ) и набережную по улице Победы. На обновляемой зоне у воды запланирован комплекс работ,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овыш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комфорта территории. Подрядчики обустраивают современную систему ливневых стоков, полностью заменят существующие ограждения, отремонтируют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е покрытие, а также установят новые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скамьи и урны.

— Это сделает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комфортным для отдыха и общения невеличан и гостей нашего города. Обновлённая набережная станет новой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и внесёт вклад в долгосрочное развитие город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евельска,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айона Алексей Шабельник.

В Поронайске продолжи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места отдыха в районе «Рефулер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десь уже появились современные объекты: смотровые площадки с живописными видами, новая беседка и спортивная площадка с полосой препятствий. Теперь настал черёд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пеших прогулок.

Главным нововведением этого года станет сеть экологических троп. Будет создано более километра деревянных настилов,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гулять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 любую погоду, не нанося ущерба природному ландшафту.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комфорта в вечернее время все тропы будут оборудованы освещением. Также вдоль маршрутов установят скамейки для отдыха.

— Это уникальное место для семейных прогулок, спортсменов и тех, кто ценит тишину и природу. Уверена, что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работ наше любимое место отдыха станет еще красивее, удобнее и функциональнее,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Поронайска Альбина Волкова.

В течение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удет обновлено и благоустроено 28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В Смирновском районе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созданию мемориала в честь памяти погибших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начали обустраивать сквер по улице Мира в Шахтерске.

— Наша задача — создать современные, безопасные и комфорт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отдыха,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и встреч с друзьями. Уверен, что новые скверы, парки и зоны отдыха станут центрами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Аристархов.

Напомни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ходит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е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 2026 году. В этом году на выбор предложено 52 территорий. Отдать свой голос в поддержку понравившегося объекта может любой ж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стигший 14-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оектам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и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выбра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можн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zagorodsreda.gosuslugi.ru или обратиться к волонтера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안되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 재외동포 민원 후속조치 본격화

민원 해결 범정부 협의체 통해

동포사회 불편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 중

"민원 소중히 여기며 오래된 불편부터 하나씩 바뀌나갈 것"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불편을 호소해왔던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등의 문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 후속 조치로 접수된 민원·건의사항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17일 1,438건의 민원·건의사항 전체에 대해 1차 답변을 전달했으며, 이중에서 관계 부처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 ①법·제도 분과위(4.27.) ②차세대동포·교육 분과위(5.8.), ③역사적 특수동포 분과위(4.30.), ④동포서비스 분과위(5.15.), ⑤동포단체지원 분과위(5.8.), ⑥국내귀환동포 분과위(4.30.)

현재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과 운전면허증(1종 보통) 갱신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무국적 우크라이나 동포의 합법적 체류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한글학교 대상 교과서 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청해 온 해외 휴대전화 인증문제도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한반도 평화, 차세대 동포가 세계에 알린다" 재외동포청-민주평통, 평화교육 협력 강화

'차세대 재외동포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모국초청연수 연계 체험형 평화교육 확대...

거주국내 평화 공감대 확산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6월 2일(화) 오후 2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응승, 이하 민주평통)와 '차세대 재외동포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거주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청의 차세대동포 모국초청연수와 민주평통의 평화교육 전문성을 연계해, 차세대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차세대동포 모국초청연수 연계 평화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 차세대동포 대상 해외 지역회의 단위 평화교육 활동 지원, ▲양 기관 간 인적 교류 과전 검토 등이다.

특히, 기존의 일방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과 체험,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차세대동포들이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 가능 웹사이트를 확대하면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동포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현장 불편도 개선된다.

재외동포청은 동포단체 지원사업 자부담률 완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은 분과위 해결 민원 50건 포함, 상세한 설명이나 추가 안내가 가능한 민원 총 153건의 2차 답변을 6월 1일 재외공관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순회영사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등 동포사회 지원 확대 방안과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앞으로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재외공관 등을 통해 2차 민원·건의사항 조사(5.8.~6.8.)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포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협 청장은 “동포들이 오래 불편해했던 문제를 하나씩 바뀌어나가겠다”며, “민원은 공직자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사항으로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동포사회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또한 거주국 주류사회와 활발히 소통하는 차세대 동포들의 특성을 살려, 국제사회 속 평화 공감대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을 심어주는 역사적 약속”이라며, “차세대동포들이 훗날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민간평화 외교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과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차세대 동포들이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글로벌 피스 리더(Global Peace Leader)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2026년 홍보대사로 '재외동포 출신' 산다라 박, '큰별쌤' 최태성 위촉

최태성 "모든 국민이 재외동포를 제대로 알게 되는 그날까지 노력할 것"

산다라박 "재외동포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으로 다가갈 것"

‘큰별쌤’ 최태성 역사 길잡이와 재외동포 출신 가수 2NE1의 멤버 산다라 박이 2026년 재외동포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6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최태성, 산다라박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초대 재외동포청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최태성 강사는 내년까지 연임하게 되었고, 산다라 박은 홍보대사로 처음 위촉되었다.

재외동포청은 최태성 강사가 지난 1년간 재외동포청 초대 홍보대사를 맡아 재외동포 이민사와 모국 기여 사례를 알기 쉽게 전달해 재외동포 인식 개선에 크게 공헌한 점을 고려해 올해 홍보대사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또 가수 산다라 박은 약 11년간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현지에서 국민적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로 성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공감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최태성 강사는 위촉식에서 “지난 1년간 약 40회의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며, “많은 국민이 재외동포의 기여에 감사를 느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일부에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모든 국민이 재외동포를 올바르게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



부를 밝혔다.

산다라 박은 “10살에 필리핀에 가게 되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무서웠다”며, “하지만 필리핀에서 꿈을 이루고 저를 통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팬분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며 재외동포로서의 삶을 회상했다. 이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분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사람은 2027년 6월까지 재외동포 인식 개선과 재외동포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두 홍보대사는 위촉장을 받은 이후 첫 활동으로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 ‘동포ON’ 라이브에 출연한다.

최태성 홍보대사의 라이브는 6.3.(수)에 진행되었고, 산다라 박 홍보대사의 라이브는 6.10.(수) 오후 3시에 송출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라이브 종료 후에도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

(재외동포청 제공)

"글로벌 바이어 300명 대기 중"...국내 중소기업 해외 진출, 한상 급행열차 뜬다

제24차 세계한상대회,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참가 등록 시작

'세계한인주간' 첫 지정...

한인회장대회 · 차세대대회 · 세계한인대회 통합 개최

460개 부스 규모 기업전시회 운영...

글로벌 바이어 300여 명 참여 예정

전 세계 동포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 재외동포 비즈니스 행사인 '제24차 세계한상대회'가 6월 1일(월)부터 본격적인 참가 등록을 시작했다.

올해 한상대회의 가장 큰 변화는 민간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이다.

한상들이 직접 대회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과 네트워크 확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세계한인주간’(9월 27일~10월 1일)이 지정되면서, 전 세계 한인 사회가 함께하는 대규모 규모 행사로 확대 개최된다.

세계한상대회를 비롯해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함께 올해 신설된 △세계한인대회가 동시에 열려 경제·문화·차세대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24차 세계한상대회는 9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행사 기간에는 세계한상포럼, 영비즈니스리더스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 기업전시회,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

다.

이번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회는 송도컨벤시아 1~3홀에서 약 46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국내 우수 중소기업 400여 개사와 글로벌 바이어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상담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전시회* 참가 비용은 기본 부스 1개당 280만 원, 독립부스 1개당 250만 원이며, 조기신청 기업에는 선착순 특별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 참가문의 : 02-6678-9543, v3a7@kodma.or.kr(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민간 중심 운영 체제와 세계한인주간 확대 개최를 통해 규모와 내실 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과 전 세계 한상 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참가를 원하는 개인 및 기업은 6월 1일(월)부터 공식 홈페이지인 ‘한상넷(https://hansang.net)’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Шоу «Песня года по-сахалински» прогремит в Чехов-центре 6 июня

6 июн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ится главное эстрадное шоу сезона, которое объединит на одной сцене ведущих исполн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сотни преданных поклонников качественной живой музыки.

Гостей края ждет уникальная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В нее вошли лучшие авторские песни, написанные талантливыми островитянами, причем многие композиции музыканты посвятили любимому сахалинскому краю.

Зрители услышат более 25 захватывающих и разножанровых треков. Каждое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вратится в мини-спектакль: номера дополнят сложнейшие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постановки, масштабное световое шоу и эксклюзивное видеооформление. Главной изюминкой вечера станет то, что абсолютно все песни прозвучат в мощном живом сопровождении оркестр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роекта выступает «Союз деятелей эстр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торый уже много лет служит ключевой стартов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и продвижения вокальных тала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м проект реализую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бор музыкального материала для итоговой «Песни года по-сахалински» ведут непрерывно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календарного года.

Базой для него служит популярная интерактив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ша музыка», выходящая в эфире областной радиостанции. Именно те композиции,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ротаций и искреннюю любовь слушателей, удостоиваются права прозвучать на главной театральной сцене острова.

Атмосферу праздника в зале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 ведущ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балет и, конечно, сами артисты.

Музык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начнется 6 июня в 18:00 на сцен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мени А.

П. Чехова.

сахалин에서 월55만 루블리 근로 임금의 일자리 생겨

5월 сахалин의 고용주들이 인재센터에 월 55만 루블리 근로임금의 일자리 채용을 공고했다. 가장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업종은 해양 분야와 기술전문직, 보건, 생산업, 경영직과 관련돼 있다.

채용 근로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해군 함대 함장과 선박기계기사로 고용주는 이러한 전문가들에게 55만 루블리를 제시했고, 선박기계 직종은 52만 루블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채용에 높은 근로임금을 제시한 업종들 중에는 기계기술자가 42만 5천 루블리, 선박 선장이 34만 5천 루블리, 치과의사 30만7200 루블리, 항만 기계설계자 30만6천 루블리 등이 상위권에 올라있다. 산업 분야의 법무 책임자와 그룹 관리자는 30만 루블리, 선원에게는 26만 루블리가 제시됐다.

고임금을 제시하는 채용공고는 주로 수산업단지, 해상운송, 보건 및 기타 경제산업 분야에서 게시했다. 고용주들 중에는 연해주 수산업회사, '샤호초르스크 석탄 항구', '치과 공학', '폐기물 관리'회사 등 지역 기관들이 채용을 게시했고, 채용된 직원들에게는 정규직, 순환근무, 교대근무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제시했다. сахалин주 인재센터의 엘레나 사월리예와 센터장은 높은 근로임금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근로경력, 책임감, 노동의 특별한 강도와 관련이 있다며, 현재 지역 채용시장에서는 전문직 근로자와 기계기술자, 의료직, 관리직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했다.

채용공고는 '러시아의 일자리'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고, 주 주민들은 인재센터 각 지점에 찾아가 알아볼 수 있으며, 인재센터에서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고,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돕고 있다.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ились вакансии с зарплатой до 55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ае сахалинские работодатели разместили в Кадровом центре региона вакансии с зарплатой до 55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Наиболее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ые предложения связаны с работой в море, инженерными специальностям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м, промышленностью и управлением. Лидерами по уровню дохода стали вакансии капитана флота и судового механика. Работодатели готовы платить та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до 550 тысяч рублей. Еще одна позиция судового механик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заработок до 520 тысяч рублей. В список самых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ых вакансий также вошли механик с зарплатой до 425 тысяч рублей, капитан судна — до 345 тысяч, врач-стоматолог — до 307,2 тысячи рублей, докер-механизатор — до 306 тысяч. Главному юристу и руководителю группы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редлагают до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а матросу — до 260 тысяч. Та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разместили предприятия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други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Сред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Приморская рыболовная компания, ООО «Угольный Морской Порт Шахтерск», ООО «Дентал Арт», А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и другие организации регион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акансии соискателям предлагают разные форматы занятости: 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сменный график или вахтовый метод.

Как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Кадрового цент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Савельева,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оплаты труда обычно связан с квалификацией специалиста, опытом работы, уровнем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ли особыми условиями труда. При этом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рынке труда сегодня востребованы как рабочие профессии, так и инженеры, медики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Актуальные вакансии доступны на портале «Работа России». Кроме того,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в любой филиал Кадрового центра, где помогут подобрать подходящую работу, оформить резюме и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собеседованию.

(러시아 및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АССРОЧК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